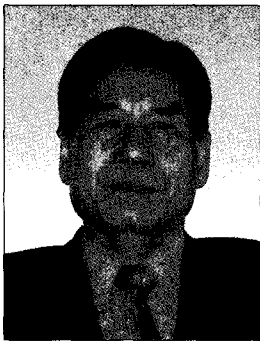


품질제일주의로 접착제 국산화 노력

공장이전 통해 발전 가속화 할 터



◀ 박완규
성도케미칼(주) 대표이사

접착제는 출하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단위 생산량이 매우 우수한 제품 중 하나이다.

국내 접착제 업계는 근래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의 가격 경쟁 덤핑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우수한 제품 퀄리티(Quality)와 고객들의 높은 신뢰도로 국내 접착제 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성도케미칼(주)(대표이사 박완규)을 찾았다.

태영화학 상무이사로 재직했던 박완규 사장은 당시 외제품이 만연하던 접착제 업계의 국산화를 꿈꾸며 지난 1991년 경기도 수원에 적은 자본이지만 국내 포장산업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성도

실업을 창업하게 된다.

이후 성도실업은 1996년 성도케미칼(주)로 법인 전환을 하고 1992년과 97년 공장 이전을 거쳐 올 1월 말 공장을 신축, 설비와 생산품목을 확장하고 생산캐파를 늘리기 위해 화성시로 이전, 개업하게 된다.

10여년전 공장을 창립할 당시 함께 했던 3명의 직원들이 슷한 공장 이전에도 여전히 함께 도우며 성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박완규 사장. 13명 남짓한 성도의 가족들은 작은 규모지만 서로간의 믿음을 통해 성도 케미칼(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박 사장은 오너(owner)의 개념이 아닌 월급쟁이라는 생각으로 직원들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규 사장은 금번 화성으로 공장 이전을 한 것이 성도케미칼(주)을 운영해 온 10여년간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밝힌다. 박 사장은 폴리에스터 폴리올을 자가 생산하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장 이전을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임대공장에서 벗어나 공장을 소유하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으로 공장을 이전한 성도케미칼(주) 전경

질(質)로 승부하는 접착제 생산 주력

현재 성도케미칼(주)은 D-8200을 비롯해 D-3000, D-9600, D-9670, D-212, CL-75, D-30, SMP-0622의 접착제를 생산,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성도케미칼(주)이 생산하고 있는 각 제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D-8200은 Dry Lamination용으로 개발된 무용제 Type의 습기경화용 Polyurethane 접착제로 PP Nylon PET Film에 접착력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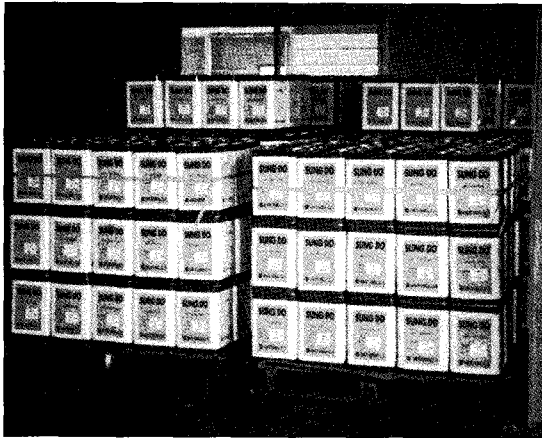
저비점 용제인 Alcohol을 희석용제로 사용하는 Dry Lamination용 2액형 Polyurethane 수지용액 D-3000은 OPP/CPP, OPP/VM CPP, OPP/Peal Film, OPP/VM PET, PET/VM CPP 등에 모두 사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D-9600은 Dry Lamination용으로 개발된 1

액형 Type의 습기경화용 Polyurethane 접착제이며 D-9670/CL-75은 Dry Lamination용으로 개발된 2액형 Polyurethane 수지로 식품포장용 film or metalized films, aluminum foil 등에 적용되는 접착력을 자랑, 제품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

D-212은 RETORT POUCH용으로 개발된 2액형 Polyurethane 수지로 내열 및 접착강도가 뛰어나며 SMP-0622은 POLYVINYL-BUTYRAL을 주성분으로 한 Metalizing Primer로써 OPP. Film의 증착시 밀착성, 접착성, 내열성을 부여하며 특히 잔류용제 이탈성이 좋다.

이 외에도 성도케미칼(주)이 직업 연구를 통해 개발한 UIB-302는 그라비아 인쇄용 잉크 바인더로 PET, Polyamide, Polyoleffins등 Plastic Film에 적용이 되는 1액형 범용 우레탄 수지로



▲ 성도케미칼(주)의 생산제품

서 필름과의 접착력, 안료와의 분산성, 필름에 대한 인쇄적성 등이 우수하여 Dry Lamination과 Extrusion Lamination 접착이 가능하고 TOLUENE을 사용하지 않으며 잔류 용제가 적은 양호한 무황변 우레탄 수지이다.

성도케미칼(주)은 현재 삼진화학(주)을 비롯한 태일알미늄(주), 동원화학, 범양화학, 금강기업 등 100여곳의 거래처에 D-9670과 D-3000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에이전트사(社)를 도입, 3년 전부터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과의 신뢰가 영업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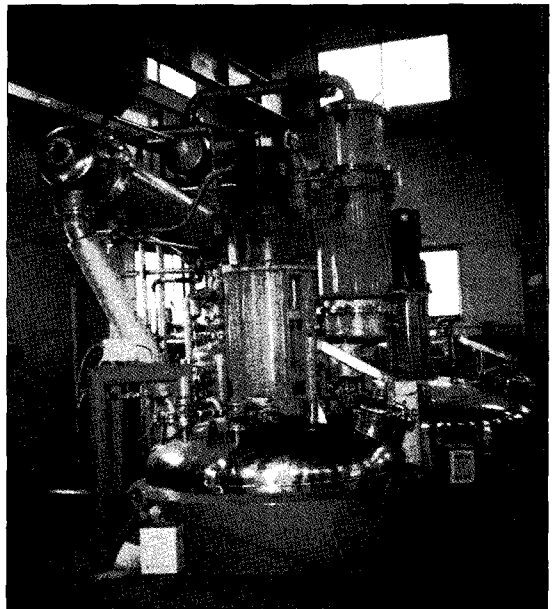
박완규 사장은 성도케미칼(주)의 접착제는 출시 이후 단 한번의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업계의 신임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월 150톤

가량을 생산, 지난 2002년 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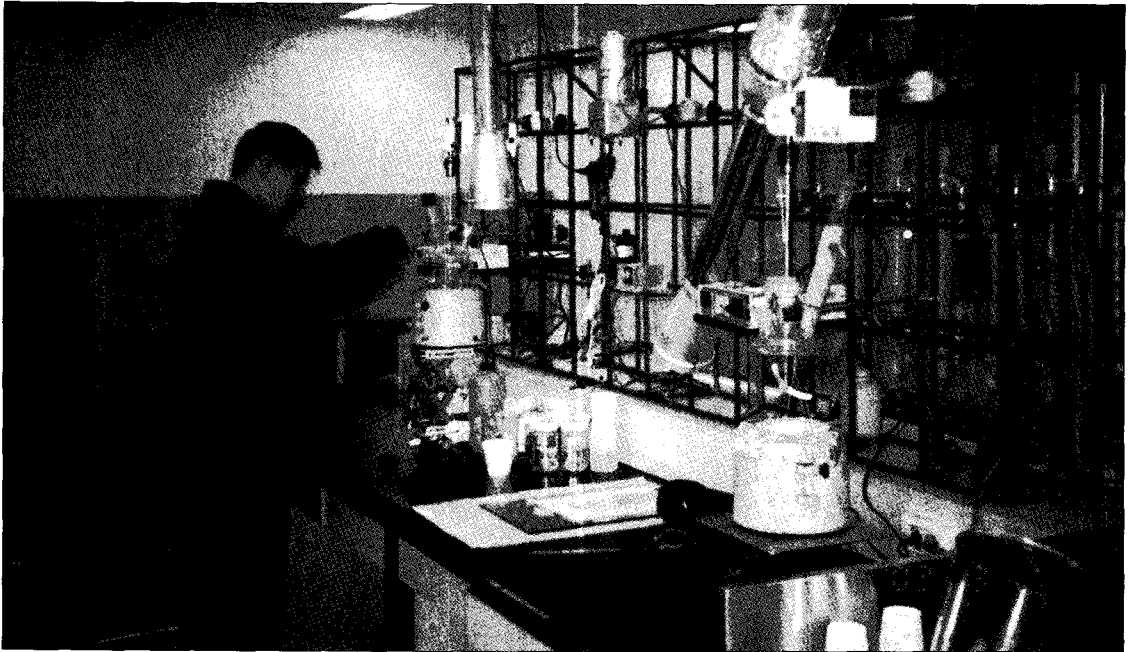
오로지 제품 퀄리티로 영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류윤기 상무는 여느 업체나 마찬가지로 접착제 업계도 사용업체와 공급업체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성도케미칼(주)은 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이다.

품질 제일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성도케미칼(주)은 지난 2002년 아자코리아국제인증원(주)으로부터 식품포장지용 우레탄 접착제에 대한 생산 및 부가서비스의 항목으로 ISO9001/2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획득, 성도의 품질우선주의의 모토를 공인받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 접착제 생산설비 탱크



▲ 클레임 방지와 품질안정을 위해 연구하는 성도케미칼(주)의 실험실

국산접착제 애용 강조

성도케미칼(주)의 박완규 사장은 2년전부터 국산화가 이뤄진 국내 접착제 업계의 현실을 바라보며 국내 제품이 질(質)적인 측면에서 향상됐음에도 일본과 미국의 제품을 사용하던 업계들이 국산품의 질(質)적 향상은 인정하면서도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편견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특히 규모가 큰 업체들이 외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접착제를 사용하는 국내 기술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외제품을 고집하는 아집을 버리고 국산품을 믿고 애용할 때 국내 접착제업계의 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포장업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접착제 업계의 발전도 없다는 박완규 사장. 그는 접착제 업계 뿐 아니라 접착제 업계가 연포장 업계의 판매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양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성도케미칼(주)은 화성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올해 6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안정단계로 정하고 잉크수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립이래 품질 제일주의를 모토로 두터운 업계 신임을 확보한 성도케미칼(주)이 꾸준한 기술개발로 국내 접착제 업계의 모토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